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경제 3단체장, ‘올해 일본경제 전악후강 될 것’

- 일본경제단체연합회(이하 경단련), 경제동우회,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3단체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일본경제가 상반기 부진에서 탈피해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.
 - 경단련의 요네쿠라 마사히로 회장은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엔화강세 추세가 일본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함.
 - 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경제동우회의 사쿠라이 마사미쓰 대표간사와 일본상공회의소의 오카무라 타다시 회장도 미국 경제회복세 둔화와 유럽 금융불안과 같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일본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함.
- 경제 3단체장은 올해에도 엔화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,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(TPP) 가입과 세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.
 - 올해 환율전망에 대해 3단체장은 대체로 달러당 연평균 80~85엔으로 예상해 엔화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, 연말 주가전망(닛케이지수) 경우 요네쿠라 회장과 오카무라 회장은 각각 10,000선, 12,000p 이상의 상승을 예상한 반면, 사쿠라이 대표간사는 오히려 장기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.
 - 또한 경제 3단체장은 올해 정치적 선결 과제로 무역 및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 가입과 간접세 중심의 세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.
 - 한편, 간 나오토 총리의 경제운용에 대해서는 사쿠라이 대표간사와 오카무라 회장이 각각 50점, 60점의 낙제점을 준 반면, 요네쿠라 회장은 민감한 세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을 들어 합격점을 주는 등 상이한 평가를 내림.

(로이터, 1/6)